

문수 스님은 탐욕·거짓을 꾸짖었다

조계종 총무원·불교연대 등 애도문 발표... 분향소 조문행렬 이어져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시민과 정치인의 조문, 각 단체의 추모사 발표가 줄이었다.

서울 조계사 분향소에는 6월 1일부터 스님의 다비가 봉행된 4일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전재성 박사(한국빠일리성전협회) 등 불교계 인사,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명숙 前 국무총리 등 정치인, 배안용 서울교회 목사 등 이웃종교인과 시민들이 다녀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일 오후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분향소를 찾았다.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에게 "문수 스님 서원을 세우고 공양한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도 분향소를 조문하고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에 조의금을 전달했다.

중앙승가대 20여 학인 스님도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큰 뜻을 기렸다.

이날 오후 심상정 前 진보신당 대표가 분향소를 찾는데 이어 저녁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한명숙 前 국무총리,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이 조문했다.

2일 오전에는 전정배 前 법무부장관, 유시민 경지도지사 후보, 손화규 前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배안용 서울교회 목사 등 이웃종교인과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다.

이외에도 김영국 前 조계종 특보,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 등이 문수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조계사를 다녀갔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에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총무원조합, 조



문수 스님의 다비식이 6월 4일 은해사에서 봉행됐다.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계종전국선원수좌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대중결사 등 불교계 안팎의 단체들의 애도문 발표가 줄이였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대원·현산·지환, 이하 선원수좌회)는 논평에서 "문수 스님은 지보사에서 무문관 생활로 치열하게 참선 정진한 울골은 남자였다"며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정치를 펼쳐서 무신과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이 훌륭한 수행자를 소신공양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는 애도문에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온 생명을 구하고 자 한 지극히 불교적인 생명살림의 발표이다. 생명의 강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탐욕과 거짓을 꾸짖는 준

엄한 질책이자 그에 맞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잡아주는 자비롭고도 고요한 항거"라고 애도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대표 퇴후)는 애도 논평문을 통해 "부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몸을 바쳐 뜻생명을 살리려한 문수선사의 보살행은 이 시대에 내리는 죽비"라며 "문수선사의 따끔한 질책에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선사의 송고 주교자 한 엄준한 가르침"이라며 "4대강 사업 중지·폐기와 부정부패 척결, 시민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문수 스님의 원력이

실현돼 예토가 정도되는 날까지 문들은 수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이상연 기자

소신공양은 신명(身命)을 버린다는 뜻으로, 위법망구의 궁극적 행위이다. 소신공양은 깨달은 구도자가 자신의 온몸을 태워 자신은 절대 삼매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 빛으로 중생을 널리 구제함을 의미한다.

현대에서는 폭정에 항거해 1963년 베트남의 틱 누 판 쩡(Thich Nu Quang) 스님이 큰길에서 소신공양했고, 한국에서는 태고종 총담 스님이 1998년 6월 27일 가평 감로사에서 조국통일 등을 염원하며 소신공양했다.

■ 문수 스님의 마지막 말

“4대강 사업 중지하고 서민 위해 최선 다하라”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후 공개된 스님의 유서는 낙동강둑에서 소신공양을 하면서 남겨진 유품인 수첩과 지보사 스님의 처소 방바닥, 입고 있던 승복 윗도리 세 곳에 남겨져 있었다.

스님은 수첩의 유서에서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 이명박 정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

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文殊(문수)"라고 적었다. 다음 장에는 도반 스님들에게 후일을 기약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스님의 방바닥에 남겨진 유서와 승복 윗도리에 남겨진 유서의 내용도 수첩의 것과 동일했다.

스님이 같은 내용의 글을 세 곳에 남긴 것은 자신의 죽음이 헛되어 되거나 고풍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수 스님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소신공양함에 따라, 불교계의 4대강생명살림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이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으로 큰 죽비를 때렸다. 더 이상 위선을 떨치지 말고 진정한 방법을 생각해 큰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 그 예이다.

조동섭 기자

문수 스님 평소 소신공양 의지 밝혀

4대강 사업 반대 등을 주장하며 소신공양을 한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며 평소 소신공양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보사 주지 원법 스님은 문수 스님에 대해 "수좌로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평소 일간지를 탐독하며 세간의 일을 걱정했다"고 회고했다.

문수 스님은 소신공양 전날에는 지보사 총무원 견월 스님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말했다. 하루에 필요한 말 몇 마디 외에는 하지 않던 스님이 이날은 좀 더 목에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원법 스님은 "5월 말에 겨울에 입는 솜옷 누비를 입고 나갔다"며 "솜옷 누비에 휘발류를 흠뻑 적서 완전한 다비가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5월 31일,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하자 스님의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앙승가대에서 스님을 가르쳤던 유승무 교수는 "이 시대 진정한 운수남자다"라고 말했다. 1998년 중앙승가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문수

스님을 기억하는 유승무 교수는 스님의 소신공양 소식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문수 스님은 그러고도 남을 분"이라고 회고했다.

유 교수는 문수 스님을 '수좌형 스님' '야생적인 사람' '원칙론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유 교수는 "거칠고 야생적인 모습을 보였던 스님은 교화보다는 수좌형 스님에 가까웠다. 심지가 깊고 원칙을 중시 여겨, 옳다고 판단했을 때는 절대 타협하는 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학생시절 말없이 조용하게 지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불서를 읽거나 수행을 했다. 소신공양할 때와 같이 말없이 조용히 행동으로 옮기고,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유승무 교수는 스님과 측구 경기를 하면서 인간적인 모습도 추억했다.

15년 도반인 견월 스님은 "문수 스님은 의리 있고 욕심 없이 공부를 해왔다. 점이 많았던 스님은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할 정도의 대단한 스님"이라고 기억했다.

이상연 기자·손법천 대구지사장

“교구본사장 축소”

불교연대 등 강한 반발

문수 스님의 장례가 범불교계장이 아닌 교구본사장으로 봉행됨에 따라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와 중앙승가대 동문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교연대는 6월 3일 성명서를 통해 "장례 절차가 불자들의 뜻과 달리 일방적으로 축소해 우리 사회의 참회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준 스님의 유지를 퇴색케 한 중대한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무원 관련 소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총무원측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앞선 2일, 문수 스님과 도반인 중앙승가대 제17기 동문스님들도 "조계종 환경위원회장으로 다비식이 봉행돼 스님의 뜻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묵살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교구장으로 축소된 것이 스님의 뜻이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총무원을 비판했다.

조동섭 기자



일봉존자 탄신 97주년 및 열반 14주기 추모대제



귀의 삼보 하옵고, 고당의 존체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불사 원만 성취 되심을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 드립니다.

불교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뜻을 지니고 어진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혜 섭심으로 자비의 등불을 밝혀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종교이며 그 깨달음의 길로 전세계 중도들을 이끌어 주신 일봉법왕 존자... 비록 육신은 아니 계셔도 법신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일봉법왕 존자!!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열반의 그날까지 전 세계 중생들을 구제 하시고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전범 하시다 열반에 드신 일봉법왕 존자님의 원적 14주기를 맞아 송고한 유업을 기리고 그 뜻을 추모 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모 합회를 봉행 하옵니다.

본 행사가 원만 회향 될 수 있도록 덕과 원력이 충만하신 스님께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존자 탄신 97주년 및 열반 14주기 추모 대제 봉행 위원회 ■

- 증 명 : 해룡 대종사, 정각 대종사, 지공 대종사
- 산중대표 : 일봉사 주지 해운스님
- 봉행위원장 :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일봉법왕종 총무원장 원각스님
- 봉행부위원장 : 공심스님, 수원스님, 법성스님, 법상스님, 해도스님, 혜성스님, 유심스님, 자은스님, 해문스님, 운송스님, 무심스님
- 준비위원장 : 무공스님
- 준비부위원장 : 보경스님
- 집행위원장 : 해선스님
- 추진위원장 : 담화 이준영 거사
- 동원위원장 : 보리스님
- 총무분과 위원 : 해경스님, 도성스님, 혜정스님, 묘원행, 김명희
- 재무분과 위원 : 도현스님, 도일스님, 도진스님
- 홍보분과 위원 : 해경스님, 해원스님, 지연스님
- 의전분과 위원 : 지산스님, 도우스님, 묘정스님
- 문중대표 : 동봉 정대용 법왕청 최고위원(홍천사 주지)

[무순]

법진 신승도 법왕불교대학 학장, 혜성 이혜성 성주금산사 주지, 청암 도한수 총남불교조계종 중정, 해광 문동춘 대승불교 달마종 총무원장, 정철 정홍문 (사)세계불교연맹 이사장, 능인 이상룡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송원진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도천 박강수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광 김용익 대한불교 달마선종 중정, 일웅 김철우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해심 문창운 호국사주지, 법천 유일수 불교일보 회장, 현공 이동남 부천정각사 주지, 연화 안명숙 총남불교조계종 계룡사 주지, 금학 최영희 무진암 주지, 불두화 최두례 부산 수월정사 주지, 법석 김석범 달마정사 주지, 법상 박상식 법화사 주지, 법성 김희중 보담사 주지, 청산 이재관 총남불교 총무원장, 남은 이창근 총화종교교육원장, 용주 권용원 용주선원 원장, 덕암 오세정 용인만국사 주지, 지선 오명환 대구 성지선원장, 혜영 김상필 성도사 주지

- 봉행의원 : [무순] 도법, 도선, 도안, 도일, 도해, 령산, 법광, 법정, 법선, 법수, 법우, 법은, 법진, 보광, 보명, 성경, 성법, 성수, 승조, 운학, 원경, 자광, 정암, 지현, 지출, 진산, 청타, 해명, 현우, 해법, 해운, 해원, 흥린, 지성, 혜화, 원명, 일현, 일선, 해인, 무무, 보경, 보리심, 법화, 보현, 도연, 공덕문, 일광, 연화행, 대원, 성덕, 보현, 연화심, 일심, 지선, 진어, 연화, 선덕, 보련화, 보광원, 목련화, 청명, 보연암, 정행, 보명, 천영숙, 수타원, 도휘, 청운행, 법륜행, 정다문, 진원, 백연심, 정도화, 도리심, 보타행, 청명화, 보타, 보리심, 혜명, 법연, 지원, 일월, 법성화, 보향, 일현, 법성화, 향원, 반야화, 대덕화, 보연, 보현, 법연실, 봉선, 혜지, 소보, 경란, 혜원, 정법, 만오, 덕산, 범봉, 명조, 해룡, 혜성, 혜강, 해인, 혜심, 원봉, 해광, 록천, 시명, 정인, 성운, 도해, 대도, 지일, 향덕, 법공, 남천, 태원, 도원, 운선, 향운, 법천, 도철, 도진남

- 주 최 : 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 주 관 : 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일봉 법왕종
- 후 원 : 일봉사, 국제불교문화원, BTN불교방송, 경기매일신문, 현대신문, 일봉문도회, 법왕청신문, 불자연애인 협회, 일봉신문, (사)국제법사단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4년 6월 20일 (음력) 5월 9일 10시부터
1부. 다례식 / 2부. 추모법회 / 3부. 추모공연
- ▶ 장 소 : 경남 의령군 공류면 평촌리 175번지 일봉사
- ▶ 연락처 : 봉행위원회 1644-3668 / 법왕청 02)3217-3217 / 일봉사 055)572-7777